

### 광주매일 TV 프로그램 안내



kjdaily.com m.kjdaily.com
PC·스마트폰·유튜브·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영상뉴스 제보·문의 062)650-2010

### [파워인터뷰]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인터뷰/토크, 뉴스, 문화산책, 기획

개지고부서지고광주북구도로정비사업, '비무장민간인사살' 5·18 계엄군청공개사죄, 호남권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화이자 백신접종 시작

## “금요일밤 어울리는 프로그램으로 남길”

‘나혼산’ 허황 PD “부담감 원동력 삼아 발전할 것”

“오래된 프로그램이지만 매주 ‘신선하다’는 반응이 왜 때까지 더 많은 분을 만나며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지난 2월 MBC TV 간판 예능 ‘나혼자 산다’(이하 ‘나혼산’)의 연출로 새롭게 합류한 허황 PD가 최근 온라인으로 진행된 화상 인터뷰에서 목표를 밝혔다.
8년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금요일 밤을 책임져 온 ‘나혼산’의 연출을 맡게 된 그는 가수 박재정부터 ‘오징어 게임’ 알리 역의 안누림 트리파티까지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프로그램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사라받은 요소는 최대한 간직하면서 새 인물을 발굴하거나 다른 편집·촬영 기법을 도입하면서 실험을 해나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주 조금씩 방향키를 조정하며 나아가고 있는 셈이죠.”
지난 5년간 프로그램을 연출하며 ‘나혼산’의 전성기를 만들어냈다고 평가받는 황지영 PD의 바통을 이어받은 그는 “부담감은 차차하는 날까지 계속 안고

가야 할 것 같다”며 “이를 원동력으로 삼으면 프로그램도, 멤버들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나래, 전현무, 기안84 등 프로그램의 기능이 되어준 멤버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나래 씨나 기안84는 ‘나혼산’의 역사를 많이 쓰신 분들이잖아요. 두 분은 프로그램의 현재를 이룬 주축이라고 생각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한 애착한 출연자죠. 전현무 회장님은 ‘나혼산’의 상징적인 캐릭터예요. 최근에 다시 합류하신 만큼 새로운 무지개 회원들과 우정을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랜 기간 시청자들로부터 사랑받아 온 ‘나혼산’은 최근 멤버 간 불화설 등 크고 작은 논란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허 PD는 “꼼꼼하게 필터링하고 주의하며 제작을 하고 있다”면서 “더 조심하고 논란이 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기안84를 향한 따돌림 논란에 대해서는 “세심하지 못한 연출이 문제의 근본이 됐다. 말로 해명을 하는 것보다는 방송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조심스레 답했다.
‘나혼산’을 통해 조연출 생활을 시작한 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밝힌 그는 앞으로도 매주 금요일,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금요일 밤은 한 주의 피로를 위로받고 싶은 시간이잖아요. ‘나혼산’이 지금까지 많은 분께 사랑받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만이 드릴 수 있는 공감과 재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금요일 밤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

## 日영화 주연 최희서 “일본어 시나리오 우리말 번역도 했어요”

‘당신은...’서 걸그룹 출신 배역



“각자 소용되지 않았던 두 가족이 우연히 만나서 큰 가족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영화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 주연 배우 최희서(사진)는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인터뷰에서 영화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다.
이시이 유아 감독이 연출한 영화는 한일 양국 배우들과 한국에서 유포케이션으로 촬영한 영화다. 형 토오루(오다기리 조)의 말만 믿고 아들을 데리고 무작정 한국으로 온 츠요시(이케마츠 소스케)가 한국인 삼 남매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일본에서는 지난

7월 개봉했으며 국내에서는 오는 28일 극장에 걸린다.
최희서는 삼 남매 중 둘째인 솔 역을 맡았다. 한때 걸그룹 멤버였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음반도 내지 못한 채 대중에게 잊히면서 방황하는 인물이다.
최희서는 “꿈은 명확한데 길은 언제 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불안감을 가진다는 면에서 가수나 배우나 다 비슷할 것”이라면서 “캐릭터에 공감하기 쉬웠다”

고 말했다.
“대쉬한 다음 주목받지 못한 시기가 훨씬 길고 주목받다가도 다음 작품이 없거나 잘 안 되기도 해요.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러나 유아 감독은 최희서의 작품을 보고 ‘강인함’에 매료돼 그에게 출연을 제안했다고 한다.
일본어에 능한 최희서는 감독으로부터 받은 일본어 대본을 한국어로 바꾸는 작업에도 직접 참여했다.
“원문이 훨씬 아름답고 시적이었다”는 그는 “다행히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원문을 최대한 살리면서 재밌겠다는 생각으로 작업에 참여했다”고 했다./연합뉴스

TV 프로그램 안내 표 (KBS1, KBS2, MBC, KBC·SBS, EBS1)

최연태의 오늘의 운세 (음력 9월 22일)

KCTV 광주방송 프로그램 안내

TBN 광주교통방송 프로그램 안내